

의료기기 및 약품 지원등도 하게 된다.

따라서 선교센터는 매주 화요일 지속적인 선교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선교프로그램 마련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교센터 산하에 「사랑의 치과」(원장 조종만)를 개설, 일반환자는 물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진료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현재 사랑의 치과 옆에는 선교훈련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 마련돼 있으며 선교활동에 관심이 있는 치과계 종사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신흥 능률협회우량평가
상장기업 중 우량도 16위**

(주)신흥이 한국능률협회가 최근 실시한 「93년 상장기업 우량도」 조사에서 16위를 차지했다. 5백 46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총자본/자기자본율/영업이익율/신장율/매출액 등 19개의 경영지표를 종합평가를 한 결과 (주)신흥은 신용평가등급 A를 획득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2백 51억 여원이었던 신흥은 금년에는 약 33%가 늘어난 3백 36억 원을 매출목표를 잡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창립 39주년을 맞이하여 총 58명의 대대적인 승인인사를 단행하여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치아우식증, 잇몸질환
방치시 생명까지 위험**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는 하악좌우측 대구치부위에 치아우식증을 앓아오던 김모씨(27세, 남, 회사원)가 발열, 오한, 복부위와 흉부의 동통, 호흡곤란 증세로 지난 6일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들어와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중태에 빠져 있다.

김씨는 지난 5월경부터 치아우식증으로 인해 하악 좌우측 대구치부위에 통증을 앓아 왔으나 그대로 방치하다가 입원 3일전부터 잇몸이 부으면서 호흡곤란 증세까지 나타나 급기야 응급수술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일차적으로 흉부외과에서 진단,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농양이 흉부의 종격동까지 파급된 사실을 알아내어 원인부 및 목부위의 농양처치를 위해 구강악안면외과팀에 의뢰돼 수술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김모씨와 유사한 증상으로 입원한 20대 여자환자가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다가 악화되어 구강악안면외과에서 동일한 수술방법으로 시술, 다행히 생명을 건졌다.

그러나 지난해 초에는 한 환자가 같은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정필순 교수는 충치들을 방지할 경우, 염증이 악골로 파급돼 골수염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목을 붓게 만들어 호흡곤란으로 사망케 되는 루드뷔그봉와직염(Ludwing:angina)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 흉강내종 격동까지 Lincoln highway를 타고 급속히 퍼져나가 폐혈증, 폐농양까지 발전, 사망케 될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악에 생긴 염증이 정맥을 타고 위로 올라가 상악동염을 일으키거나 해면정맥동 혈전증, 뇌막염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과거에 비해 요즘에는 경제성장과 의학발달로 충치 하나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드물지만 방치할 경우 언제든지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최근까지 만해도 해마다 3-4명의 환자가 이런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내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치과용
서식이 필요하십니까?**

저희 도서출판 현대의학사에서는 齒科用 書式일체를 구비하여 주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TEL: 277-8867 / 266-8398
FAX : 268-5301

국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성료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제10차 국제구강악안면 방사선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가 24개국의 4백10여 명이 참석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7일 개회식에는 유동수 대회장을 비롯 주경식 보사부차관·김정균 치협회장·후지키 명예회장·파이보비치초 대회장·파타키직전 회장·랜그레이즈 사무총장 등 유명인사들이 참석했다.

학술대회에서는 2개의 연제, 특별강연, 일반연제 포스터, 비디오 등 3백여 연제가 발표됐고, 사교관광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첫 세계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번 10차 정기총회에서 미국의 파만(Farmann)교수가 회장에 취임했으며,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기자재 전시회를 비롯한 환영연, 한국의 밤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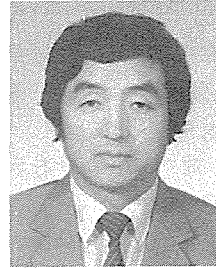
I.T.I.심포지움 성황리에 개최

지난 6월 28~29일 양일간 서울 남산에 위치하고 있는 힐튼호텔에서 한국·국제구강 임플란트학사회(회장 : 김홍기)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 최광철)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I.T.I.심포지움 94 in SEOUL이 1백 60십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 날 열린 개막식에서 김홍기 회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열성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다」며 회원들에게 보다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였으며, 최광철 회장은 「치과의학의 첨단 분야인 임플란트를 잘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히며 전회원들의 노력과 분발을 당부하였다.

또 임플란트의 심미치과보철, 골조성법, 악안면외과와 임플란트, 임플란트를 위한 골이식, 골조직의 조직학적 측면, SINUF LIFT ITI임플란트시스템의 신제품등이 강연된 이번 심포지움에는 외국의 연자 및 국내연자들이 초청되었는데, 외국연자로는 스위스의 Dr. U. Belser교수, 독일의 Dr. G. Krekeler교수, 미국의 H. P. Weber교수 등이 참석하여 특강을 가졌으며 국내에서는 김홍기 박사, 서창환 박사, 이원철 박사, 서울치대 양재호 교수가 연자로 참석하였으며 이 기간 중 기자재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치협 변영남 공보이사
보사부 보건교육자문위원 위촉



치협 변영남 공보이사가 보사부 보건교육자문위원회 구강 보건 분야

위원으로 위촉됐다.

보건교육자문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건강 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학계·언론계·관련단체·공무원 등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과계에서는 기존의 김주환 한국구강보건협회 회장을 비롯 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금년 6월 29일부터 96년 6월 28일까지 2년이다.

치과의료선교회
선교훈련 치과의료센터 개원

치과의료선교회(회장 양유식)는 최근 치과의료인을 대상으로 선교후보생을 발굴하고 장·단기 해외선교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치과의료센터를 열었다.

치과의료센터(원장 이창호)는 치과의사는 물론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전문인 선교훈련을 하게되며 훈련시킨 선교후보생들을 기존의 해외 선교단체와 공동으로 파견,